

월요광장

발견으로서의 역사



채 희 운
소설가·광주여대 교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뜨겁다. 역사가 '사실'의 기록이며,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치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 그러다가 '푸르타크 영웅전'이 생각났다. 선생님들의 권장도서 목록에 빠짐없이 들어 있던 책이었다. 특히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중 하나는 지금도 내 좌우명이 되어 있다.

“나는 승리를 즐치지 않는다!” 그의 말에 따라 초중고 대학 시절에, 나는 그 흔한 컨닝(복학해서 대강당에서 치른 교련 교과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므로 제외하고) 한번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를

먹음에 따라 내 앞에 나타난 영웅 알렉산더는 위대한 존재만은 아니었고, 사소한 결점이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역사책에 관한 가장 인상 깊은 것은—가치적 차원이 절대 아닌— 토인비의 저서이다. 그의 ‘역사의 연구’의 서문을 4×6배판 대학 교양영어 교과서에서 만났다. 두 쪽을 넘어가는 긴 문장인데 신입생 모두를 해석의 늪 속으로 빠뜨렸다. 머리털 나고 그렇게 긴 문장은 만나 보지 못했다. -나중에 ‘한 문장도 채 못 된 소설’을 읽기 전에는-, 그 벽찬, 한 문장은 결국 “역사는 반복한다”라는, 이른바 1형식 영어 문장이었다. 아무튼 중간고사 해석 문제이기에 투쟁하며 번역한 것이 아니라 ‘역사책 꼼꼼히 읽기’의 첫 번째였다.

다음으로 대학생 모두가 보고서를 써야 했던 카(E. H Carr)의 ‘역사는 무엇인가’였다. 이를 통해 나는 사실인 역사를 내 의식 속에 투영하여 나름대로의 역사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 교육이 제 시해 주었던 세계와 내가 현존한 세계의

결절한 차이나, 개인을 속이는 권력에 의해서 주어진 환상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었다.

그런 발견으로서의 역사의 또 하나 전환점은, ‘서발턴’(subaltern)주의자들의 관점에서의 역사 연구였다. ‘오리엔탈리즘’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먼저 접했다면, 그 충격은 훨씬 컸을것이다. 아직도 그들과 조우했을 때의 충격은 내 무의식의 근저에 맹위를 떨치고 있다. 다음엔, 나는 ‘미시사’(微時史)라는 흥미진진한 세계로, 소위 교수로서의 지적 성식을 유지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으로 역사를 읽는다. 역사는 왕조의 실록(實錄)이란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다. 발견으로서의 역사는 인간의 성숙 과정과 맞닿아 있다. 그러므로 역사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해석의 지평을 열어 놓아야 한다. 역사는 ‘팩트’(facts)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몫이므로.

우리 역사 기록을 흔히 사초(史草)라고 부른다. 역사기록물에 왜 ‘표’(標) 자를 썼을기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타당한

해석이 있지만, 나는 새가 ‘설문계전’에서 ‘뜰에 제멋대로 자라난 풀처럼 결코 다들지 않고 그대로 쓴 글’이라는 관점을 지지한다. 하나의 인격체인 학생들에게는, 역사를 ‘제멋대로 자라난 풀처럼 사실 그대로 제공’해야 한다. 교사는 자신의 자리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하지만 이끌어서는 안 되며, 사실 말에게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일이다.

푸코가 ‘고고학적 역사론’을 통해 말한 대로 당대의 담론을 통하여 사회 전체를 지배하려는 보이지 않은 권력들의 의지가 작동되고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아마 많은 지식인들과 학자들이 국정화에 반대한 것은 그러한 사실에 대한 암묵적 거부 반응일 것이다.

역사 공부의 인간이 현존재로서 자기 를 아는 가장 훌륭한 공부이다. 그러므로 ‘뜰에서 스스로 자라난 풀처럼 사실 그대로 손으로 다들지 않은 것’을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역사의 바른 공부이다. 그 반대급부는 확립화일 것이니...

법조칼럼

역사와 시험



박 승 일
변호사·광주지방법원호사회 공보이사

역사를 왜 배우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은 단순하다. 시험을 치르기 때문이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뒷전이다.

역사의 교훈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자는 데 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두고 싸움이 시작되면 답이 없다. 시험에서는 답이 없으면 출제가 잘못된 것인데, 현실에서는 그저 답 없는 싸움이다.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 기록과 교육의

가치 중 어디에 좀 더 가치를 둘 것인지가 기록하는 이의 가치관에 달린 것이고 후손들은 이를 해석하느라 고민이다.

흔히 드는 예지만 유리잔에 물이 2분지 10이 남았을 때 물이 절반이나 남았다는 사람과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람으로 나누게 마련이다. 그 누구도 거짓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물이 2분지 1만 남았다고 설명되는 일이 드물다.

오늘은 ‘10·26’이다. 과거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가 거센 국민적 저항을 받았다. 우리 국민은 성공한 군사쿠데타의 주역들을 모조리 법정에 세워 법률적으로 단죄했다. 그리고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앴다.

그러나 성공한 ‘5·16’도 우리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몇 가지 법률적 문대만 해결하면 생존한 쿠데타의 주역을 법정에 세울 수도 있다.

다만,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이들 중 누군가는 부하의 총에 사망하거나 권력암투에 희생되던지 병사(病死)하는 등 단지

기소할 수 없는 공소권 없음 상태가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박정희를 범죄자로 평가하는 것은 범조인의 시각에서는 틀린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헌법 제13조에서 연좌제를 폐지하고 헌법 제11조에서 평등의 원칙을 천명한 이상 범죄자의 가족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역사와 여론의 힘을 빌려 육하고 싶기도 할 터이다. 이에 반해 누군가는 역사와 여론의 힘을 빌려 보호받고 싶을 것이다.

솔직히 단 하나의 교과서로 배운다면 수험생의 입장에서 더 없이 좋다. 하지만,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자유로운 평가가 생명이다. 획일적인 시각의 역사는 죽은 역사이다.

반면에 누군가 역사 교과서에 ‘뿔소리’(허튼소리의 전라도 사투리)를 쓸 때, 자정 정의 관념에 불타는 이들이 모여 위세를 과시하면서 ‘뿔짓’한 역사 교과서에

‘다구리’(부랑배의 은어로 몰매)를 놓을 수 있느냐는 동전의 뒷면이다.

역사의 왜곡과 뿔소리를 건넌한 상식으로 소멸시키는 과정이 역사관점에서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그런데 요즘 같이 급격히 사회변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건강할 토론이 어렵다.

그럼에도, 획일적 시각과 편향성에 대해서는 목적의식이 건강할수록 경계해야 한다.

알게 모르게 학생들은 가르치는 이에 게 영향을 받아 물이 절반이나 남았던 것이 아니면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가치관을 형성할 터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가르치는 이의 가치관과 달리 생각하거나 표현할 자유가 있느냐다. 그건 가르치는 당선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내에게는 강요하지 말고 객관적 내용만을 교육해 달라는 학생들의 뿔네소리가 없다고 자신해선 안 된다.

그러나 역사 과목 선생님이수록 타인과 과거를 평가함에 있어 부정적 표현을 쓸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

社 說

한빛원전 운영 ‘주민 안전’ 최우선으로 해야

한빛원전 3·4호기 증기발생기 안전성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후화로 인한 가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설계 당시 정한 규정의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평가 규정을 누락한 채 기술적인 검토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원자력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중대한 사고를 가정해 기술과 안전성을 검토하는 조항이다.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안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돼야 하는 기술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술 검증이라 할 수 있

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한빛 3·4호기 운영변경 허가 신청사항 기술검토보고서’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수로 안전심사지침’에서 규정한 평가절차(10항)를 누락한 채 검토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증기발생기 전열관 일부가 깨진 상태에서 전원상실과 외부로 연결된 공기방출밸브가 열린 채 고착되면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안전성 평가가 누락돼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다소 전문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주민 안전을 무시한 채 노후화된 원전 운영 연장에만 급급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물론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와 관련된 평가를 생각하고 관ക്ഷ 허용률을 18%로 높여도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안전은 늘 만에 하나를 가정하고 대비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높은 임대료에 대인시장 작가들 다 떠나면

광주 대인시장을 ‘예술시장’으로 살려 놓는 작가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점포 임대료가 오르는 바람에 작업실 유지가 어려워 대인시장수가 더 이상 시장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다른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쇠락해 가던 대인시장은 지난 2008년 광주비엔날레 기간 진행된 ‘북대방 프로젝트’를 계기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이후 20~30대 작가들이 빈 가게를 싸게 작업실로 활용하면서 방문객들도 북적이게 됐다.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사업’이 진행됐고, ‘대인 예술 야(夜)시장’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작가들 덕택에 시장이 활기를 띠자, 돈벌이를 노리고 야시장에 열리는 날이면 일종의 ‘뿔대방’(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영업하는 가설 형태의 상점)까지 생겨나는 등 점포 수요가 늘면서 임대료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작가들은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시장을 떠나기도 했다.

현재 대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월평균 임대료는 일반인들과 절반 차이가 없다. 예술인 15만 원, 청년상인 점포는 17만 원이긴 하지만 작가들이 일반인에 비해 좁은 공간을 사용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혜택은 별로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광주 동구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일부로 청년상인 점포와 예술인 작업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임대료 인상 자체도 축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미 점포 비용이 많이 오른 데다 재산권 행사는 강제할 수도 없는 일이라서 구청이나 작가들이나 애가 타는 것은 마찬가지다.

더 많은 작가를 시장으로 부르려면 건물주들의 ‘상생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작가들이 떠나면 시장도 침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시장 살리기의 주역들이 대우를 받기는커녕 되레 곤란에 처해 서야 되겠다는 가.

無 等 鼓

답안지에 수험생의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 수험생이 합격 점수를 받았다면, 그것도 상위권이라면! 예전과 달리 요즘엔 이름 쓰기와 상관없이 합격될 수도 있고, 결정 사유로 불합격될 수도 있다.

OMR카드 답안지를 작성하는 시험의 경우 이름이 없더라도 수험번호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을 파악할 수 있어 별 문제없이 합격 처리된다. 물론 수험생 이름이 없는 답안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거기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험생이 수험번호와 이름을 사용하지 상단에 직접 적는 테스트는 채점을 인사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이름이 없으면 ‘준비되지 않은’ 수험생으로 보고 불합격 시킬 가능성도 있다.

똑같은 사례가 조선 영조 시대에도 있었다. 당시의 과거시험에서 채점관의 부정을 막기 위해 수험생 이름을 가리고 점수를 매겼다. 채점이 끝나고 합격자가 발표됐다. 그런데 정식 문과 2등에 합격한 답안지에 이름이 없었다. 2등 합격자는 정 7품 관직에 임관하도록 돼 있었다. 과거에 합격만 해도 집안 경사일 텐데 더구나 2등 합격은 출세기도를 달

릴 수 있는 보증수표나 마찬가지였다. 이름·나이·주소 등 인적 사항이 없어 합격자를 모른다느 소문이 순식간에 도성에 퍼져 나갔다. 과거장의 문이 닫히려는 찰나 한 젊은이가 달려와 자신이 이름 없는 답안의 주인공임을 밝혔다. 마유씨 좋은 채점관은 이름 없는 답안지에 ‘윤 급’이라는 합격자 이름을 써 넣었다.

이 채점관은 영조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채점표와 합격자 명단을 들고 결재를 받으러 갔다. 영조가 합격자 명단이 늦은 이유를 묻자, 채점관은 이름 없 는 답안지 주인을 기다리다가 늦어진 사연을 설명했다. 보고를 받은 영조는 격식을 어긴 만큼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대입 수능시험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모든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 아르지 않고, 평소대로 공부에 임할 것임을 약속했다. 시험 답일에는 후대천하가 가져가지 않자 등 준수 사황을 명심해야 한다. 긴장하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시험장 입실 후에는 감독관 지시에 따르고, 모의고사 보듯 평정심을 유지하길 바란다.

/채희중 사회2부장 chae@

기 고

어린이 식품안전 패러다임 정립해야



박 세 영
광주시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등 경제활동기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부가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하면서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전문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 보육시설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보육시설의 수준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보육 서비스의 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의 하나가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난 201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27.1%가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급식안전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어린이 급식시설에서 급식위생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급식시설에서는 급식 관리 전문 인력인 영양사의 고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설치된 141개 센터는 영양사의 의무고용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시설과 시설 관계자, 어린이 및 학부모를 대

상으로 위생 및 영양 관리에 대한 다양한 지도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 급식시설 중 28%가 이러한 지원을 받고 있다.

2012년 6월에 업무를 시작한 광주시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회원으로 등록된 240여개 어린이 급식시설(광주 북구 어린이 급식시설의 50%)을 연간 9회 이상(위생안전관리 9회 이상, 영양관리 9회 이상) 직접 순회 방문해 급식시설·별비·급식관계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지도와 균형 잡힌 식단 제공, 1인 1회 적정 배식량 및 면역 강화 레시피 등 영양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순회 방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맞춤형 관리를 하고 있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도록 자체 개발한 각종 교육 매체를 사용하여 손 씻기, 식중독 예방 등 위생교육과 편식 예방, 식사예절 등 식생활 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광주시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97.2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조사결과보다 1.82점 상승한 결과로 센터의 지속적인 현장방문 지원을 통해 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센터와 지원업무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졌으리라 사료된다. 이렇듯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린이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꿈이다.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위하여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라 생각한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역 사회 어린이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성장의 기초를 다지고 더 나아가 어린이 식품안전 패러다임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전거로 즐기는 가을 풍경 어때요

푸른 하늘과 청량한 공기, 황금빛 들녘, 울긋불긋한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다. 시원하게 불어와 두 뺨에 닿는 가을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다. 이런 멋진 풍경을 빠르게 스쳐가는 자동차 보다 느긋하게 페달을 밟는 재미가 솔솔한 자전거 여행이 어떨까? 골목을 누비며 숨은

명소를 둘러보는 여행도 자전거만 한 것이 없다.

자전거는 ‘건강’과 ‘친환경’의 상징으로 매연과 환경오염 등에 구애받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출퇴근이나 통학, 레저 등 투어용 마니아층도 형성돼 있다.

걷거나 달리기 등 다른 운동에 비해 쉽고 효과도 크다. 무릎이나 발목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칼로리 소모도 높아 관절의 큰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으로, 근력과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을 함께 향상시킨다.

비교적 먼 거리에 다양한 코스를 달릴 수 있어 지루하지 않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가을은 짧다. 바람에 춤추는 갈대와 화려한 코스모스를 만끽하기엔 지금이 제격이다. 도심 곳곳엔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져 있다. 자연의 상쾌함을 느끼며 마음껏 여유를 부리거나, 맛바람을 가로지르는 쾌적한 속도감을 즐기려면 자전거가 최고다.

푸른 하늘과 붉은 단풍 한창일 때 가을 풍경 감상과 자전거로 떠나자.

▲정찬우·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041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대처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프 로젝트 팀 2200-555	문화사 업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